

NC 만나는 KIA, 도약 위한 시험대



브룩스



루친스키

‘호랑이 군단’이 진짜 실력을 평가받는다. 수도권 원정 9연전 일정을 마무리한 KIA 타이거즈가 마침내 선두 독주 중인 NC 다이노스를 만난다. KIA는 16일부터 안방에서 NC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개막 이후 첫 만남이다. KBO 연승경기에서는 KIA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했지만 막상 투구를 연 2020시즌의 강자는 NC였다.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과 당대 최고의 포수 양의지를 중심으로 한 주축 멤버에 공수에서 신무기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마운드에서는 구창모가 최고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올 시즌 7경기에 등판한 구창모는 48이닝을 5실점(4자책점)으로 틀어막으면서 0.75의 평균자책점(1위)과 함께 패 없이 5승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많은 52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이닝당 출루허용률(0.69), 퀄리티스타트(7번), 피안타율(0.136) 1위도 구창모의 몫이다. 타석에서는 강진성이 깜짝스타다. 강진성은 타율(0.450), 출루율(0.500), 장타율(0.810) 1위에 올라있다. 8차례 담장을 넘기며 31타점도 올렸다. 특급 방패와 창을 더한 NC는 26승 9패, 승률 0.743의 승률로 2위 LG를 4경기 차로 따돌리고 있다. 5위 KIA와는 7.5경기 차, 18연패에서 탈출한 최하위 한화와는 17.5경기 차까지 벌어진다. KIA는 지난주 연달아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지만, 앞선 두산전 3연패로 수도권 원정 9연전에서 4승 5패로 뒷걸음질 쳤다. 강팀이라고 하기에는 두산

T 타이거즈 전망대

오늘부터 홈에서 NC·삼성과 6연전 NC, 나성범·양의지·구창모 등 공·수 주축멤버 맹활약에 1위 독주 투수 주요 부문 KIA와 1·2위 다름 화력은 타율·타점 등 KIA 압도 집중력·벤치 ‘운영의 묘’ 필요

■ KBO중간순위 (15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35	26	0	9	0
2	LG	35	22	0	13	4
3	두산	35	21	0	14	5
4	키움	36	20	0	16	6.5
5	KIA	36	19	0	17	7.5
6	롯데	35	18	0	17	8
7	삼성	36	17	0	19	9.5
8	KT	35	13	0	22	13
9	SK	35	12	0	23	14
10	한화	36	9	0	27	17.5

과의 기싸움에서 밀렸고, 약팀이라고 하기에는 강렬한 4승이 있었다. 1위 팀을 상대로 진짜 전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무대. 일단 마운드 싸움에서는 KIA도 만만치 않다.

두 팀은 투수 부문 1, 2위를 다툰다. KIA가 이닝당 출루허용률에서 1.28로 1.33의 NC에 앞서 1위, 삼진 개수도 280개로 2위 NC보다 10개 더 많다. 퀄리티스타트는 NC가 20차례로 1위, KIA는 19차례로 2위다. 선발 평균자책점도 3.16과 3.63으로 NC가 근소하게 앞서 있다. 피안타율도 NC(0.249)와 KIA(0.256)가 나란히 1·2위다. 하지만 화력에서는 NC가 KIA를 압도한다. 타율(0.305), 홈런(55개), 타점(235개), 대타타율(0.327), 하위타선OPS(0.904), 2루타(0.904), 출루율(0.382), 장타율(0.504) 등에서 NC가 1위를 찍고 있다. 무서운 화력과 함께 14승을 합작한 루친스키(4승)-라이트(5승)-구창모(5승)가 나란히 출격을 앞두면서 KIA에는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결국은 ‘집중력’ 싸움이다. KIA는 마운드에 비해 타선이 약하지만 올 시즌 곳곳에서 홈런이 터져 나오는 등 힘이 붙었다. 터커, 최형우, 나지완 중심타선의 무게도 밀리지 않는다. 하지만 팀 잔루 1위(272개)를 기록하는 등 타선의 집중력이 아쉬움이다. 수비에서도 공 하나하나에 야수들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난적을 겪기 위해서는 수비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안정된 수비로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면서, 반대로 상대의 수비 빈틈을 노려야 한다. 김선빈에 이어 류지혁도 부상으로 빠진 내야를 채울 벤치의 지략도 필요하다. KIA가 1위 NC를 상대로 상위권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공포의 ‘검빨 유니폼’ 나가신다

KIA, 20·21일 올드 유니폼 데이

KIA타이거즈가 ‘검빨 유니폼’을 입고 추억의 그라운드를 연출한다. KIA는 오는 20, 2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경기에서 ‘올드 유니폼 데이’를 연다. 이날 KIA 선수단은 ‘타이거즈 왕조’를 상징했던 검정색 바지와 빨간 상의를 입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왕조의 추억을 더할 ‘레전드’도 경기장을 찾는다. KIA는 1988년 한국시리즈 MVP에 빛나는 ‘꽃돼지’ 문희수와 KBO리그 원년 ‘홈런왕’ 김봉연을 초청해 감사패와 기념 액자를 전달한다. 이들은 각각 시구와 시타도 담당한다. 시구자량으로 올드카도 준비했다. 이날 KIA는 기아자동차 최초의 스포츠 세단인 ‘엘란’을 시구차로 이용한다. 이밖에 KIA 응원단은 80-90년대 히트곡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운다. 유튜브 ‘가TV’ 생방송을 통해 팬과 소통도 할 계획이다. 앞서 18일에는 ‘레이디스데이’가 진행됐다. 이날 선수단은 핑크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한다. 한편 올드 유니폼과 핑크 유니폼은 KIA타이거즈 온라인숍(lockerdium.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스포츠팬들 가슴 철렁~

KIA 류지혁, 경기중 허벅지 근육 파열...광주 FC 엄원상, 테클에 오른발 부상

광주 스포츠팬들에게는 가슴 철렁한 ‘부상의 밤’이었다. KIA 타이거즈와 광주FC는 지난 14일 각각 아쉬운 끝내기 패와 짜릿한 역전승으로 표정이 엇갈렸다. 하지만 두 팀은 경기가 끝난 후 같은 고민을 했다. 바로 ‘부상’이다. 이날 SK와이번스와 원정경기를 치른 KIA는 9회초 3-3 동점까지는 이뤘지만 9회말 나온 최정의 끝내기 홈런에 패배를 기록했다. 패배보다 더 아픈 게 9회초 공격 상황에서 나온 ‘새바람’ 류지혁의 부상이었다. 2-3으로 뒤진 9회초 1사에서 내야안타로 출루한 류지혁이 유민상의 중전안타 때 2루를 돌아 3루를 가는 도중 상황이 발생했다. 굳은 표정으로 다리를 절뚝인 류지혁은 혼신을 다해 3루 베이스를 찍은 뒤 쓰러졌다. 스스로 걸어 나온 김선빈과는 달리 류지혁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구급차에 실려 이송됐다. 안방에서 경기를 치른 광주는 부산아이파크와의 시즌 첫 대결에서 3-1 역전승을 거뒀다. 안방에서의 첫 승리이자 첫 연승이 기록된 날이었지만 경기가 끝난 후 박진섭 감독의 얼굴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다. 이날 부산은 거친 플레이로 광주 선수들을 괴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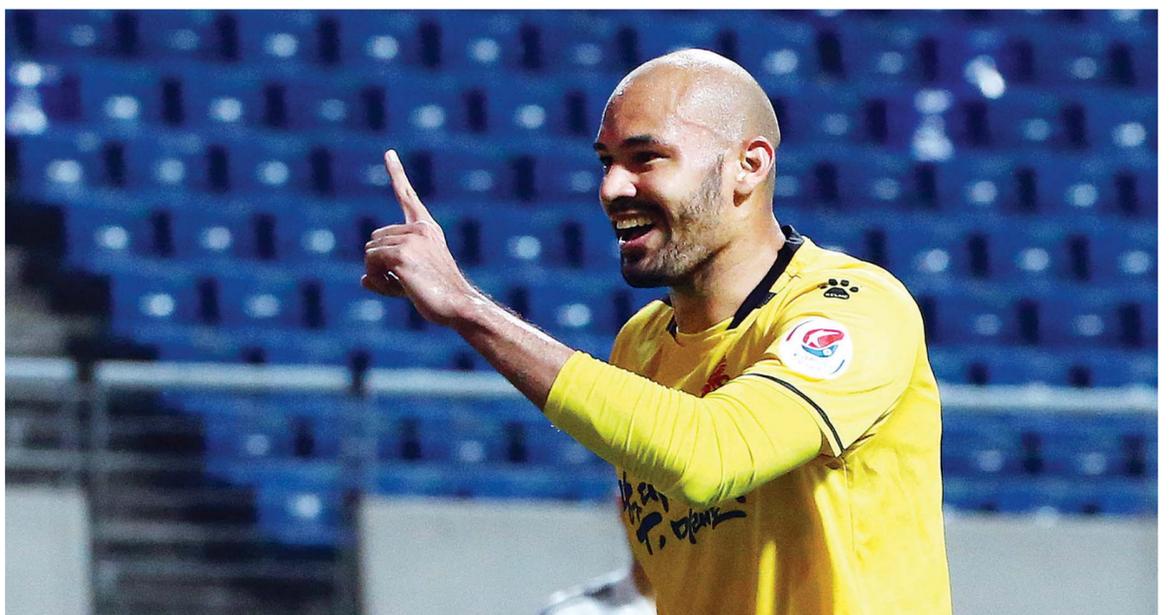
혔다. 전반 35분에는 엄원상이 박종우의 테클에 오른발을 다쳤다. 한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엄원상은 전반전까지 소화했지만 결국 후반 시작과 함께 김정환으로 교체됐다. 엄원상은 광주 반전의 키였다. 발목 부상으로 재발을 해왔던 엄원상은 지난 4라운드 울산전에서 시즌을 개시했고, 이날 특급 스피드로 울산 골대를 뚫으면서 팀 첫 승점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는 이 경기를 발판삼아 분위기 반전을 이루고 연승까지 이뤘다. 상순세의 주역이자, 하필 앞선 부상 부위였기 때문에 박진섭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아픈 부위를 또 다쳐 교체를 했다. 관참기를 바라고 있다”며 애타는 심정을 밝혔다. 날이 밝은 뒤 두 팀의 표정이 다시 엇갈렸다. 류지혁은 16일 MRI 검진 결과 왼쪽 대퇴부 이두근 파열 진단을 받았다. 2주일 뒤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지만 몇 달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엄원상은 다행히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병원 대신 숙소에서 컨디션 관리에 나섰다. 17일 인천전 결과가 예상되지만 큰 부상이 아니어서 21일 전북 원정에 맞춰 재가동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비상의 날개 펼친 광주 FC

K리그1 부산전, 윌리안·펠리페·김주공 골 3-1 승...8위로 상승

광주FC가 ‘해결사’ 펠리페로 순위 싸움에 날개를 달았다. 주장 여름은 기본 좋은 승리로 200경기를 자축했다. 광주는 지난 1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산아이파크와의 2020 K리그1 6라운드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앞선 수원원정에서 개막 후 다섯 경기 만에 첫 골을 넣은 펠리페가 다시 한번 결승골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 승리로 광주는 승점 7점을 채우며 8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승적 전쟁’을 벌인 부산과의 첫 만남. K리그2 우승컵은 차지했지만 부산에 승리가 없었던 만큼 광주는 초반부터 거세게 부산 골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프리킥 상황에서 나온 아슬마토프의 골이 비디오 판독 결과 박준혁의 손에 먼저 맞았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무효가 됐고, 윌리안의 환상적인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왔다. 결국 전반전을 주도하고도 선제골은 부산의 몫이었다. 전반 추가 시간에 이정현의 패스를 받은 호물로가 왼발 슈팅으로 광주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5월의 광주가 아니었다. 이렇다 할 공세를 펴지 못하고 3연패를 기록했던 광주는 4라운드 울산전 1-1 무승부로 텅 빈 포트를 마련했다. 앞선 5

라운드에서는 마침내 펠리페의 골이 터지면서 승리를 거뒀고, 자신감이 넘쳤다. 광주의 자신감은 결과로 나타났다. 전반전 골대 불운에 울었던 윌리안이 후반 19분에는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광주 진영에서 아슬마토프가 길게 올려준 공을 이요름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배달했다. 그리고 윌리안이 재치 있는 플레이로 상대 수비수를 뚫고 오른발로 골대까지 갈랐다. 8분 뒤에는 펠리페가 웃었다. 김창수의 패스를 받은 펠리페가 페널티킥으로 진입한 뒤 골대 오른쪽을 뚫으며 역전극을 연출했다. 위기 뒤 역습도 광주의 달라진 자신감을 보여줬다. 후반 추가 시간에 부산 빈치청코의 슈팅이 광주 골대로 향했다. 골키퍼 이진형의 슈퍼 세이브로 한숨을 돌린 광주는 바로 역습에 나섰다. 후반 교체 투입됐던 김주공이 펠리페와 김정환으로 이어진 패스를 받아 승리에 마침표를 찍는 썩기골을 장식했다. 부산이 거친 플레이로 승리를 막으려 애썼지만 광주는 팀워크와 기술에서 앞서며 세련된 승리를 완성했다. 침착하게 중원을 누비며 승리를 이끈 ‘주장’ 여름은 200경기 출장날 3-1 승리라는 값진 선물을 받았



광주FC의 펠리페가 지난 14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산아이파크와의 6라운드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다. 여름은 이날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전기록을 달성했다. 광주에서 나고 자라서, 광주 유니폼을 입고 이룬 기록이라서 더 의미 있다. 지난 2012년 광주에 입단한 여름은 2013년 3월

16일 상주전에서 ‘원클럽맨’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2014년 광주의 기적 같은 승적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에는 팀 부주장으로 K리그2 우승을 이루며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꼽혔다. K리그에서 원클럽맨으로 200경기(군복무 포함)

이상을 달성한 선수는 여름을 포함해 총 87명. 이적이 잦은 시민구단으로 시야를 좁히면 12명에 불과하다. 또 현재 시민구단에서 200경기를 채운 선수는 여름과 강원FC 김요규 둘 뿐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